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전치사 with의 인지론적 의미분석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인 경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전치사 with의 인지론적 의미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하 인 경

하인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주심 문학박사 정해룡 (인)

위원 문학박사 전춘배 (인)

위원 영어학박사 김은일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II 이론적 배경	3
2.1 다의어	3
2.2 인지문법의 개념	7
2.3 은유	11
2.4 지속성의 원리	13
III <i>with</i> 의 기본 의미 및 확장 의미	14
3.1 <i>with</i> 의 기본 의미	14
3.2 <i>with</i> 의 의미 확장	18
3.2.1 동반	19
3.2.1.1 보호/ 위탁/ 수반/ 지참	19
3.2.1.2 도구/ 재료	23
3.2.1.3 혼합	24
3.2.1.4 소유	25
3.2.1.5 동시	28
3.2.1.6 연관성	30
3.2.1.6.1 원인	31
3.2.1.6.2 목적	34
3.2.1.6.3 양보	35
3.2.1.7 동의	35
3.2.2 상대	36

3.2.2.1 비교	40
3.3 with의 의미망의 구성	42
IV <i>with</i>와 다른 전치사들과의 의미 비교	44
4.1 ‘방향성’에 있어서 to와의 의미 비교	44
4.2 ‘원인’에 있어서 at과의 의미 비교	49
4.3 ‘원인’에 있어서 from과의 의미 비교	52
4.4 ‘반작용’에 있어서 against와의 의미 비교	55
V 결론 및 제언	60
5.1 결론	60
5.2 교육적 함의	61
참고 문헌	63

그 립 목 차

<그림 1> ring의 의미망.....	10
<그림 2> 전치사 with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	17
<그림 3> X가 Y의 보호를 받는 관계	20
<그림 4> 동반되어 이동하는 X와 Y	22
<그림 5> 전체와 부분 기본 도식	27
<그림 6>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나 상태	29
<그림 7> 감정의 영역에 도입된 사람과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	32
<그림 8> 상호 작용의 영역에 도입된 두 상대	37
<그림 9> with의 의미망	43
<그림 10> 전치사 to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	45
<그림 11> 전치사 with와 at의 의미 비교 도식	51
<그림 12> 전치사 from의 원형의미 도식	53
<그림 13> with와 against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	57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eanings of the English preposition ‘with’, especially its polysemous property 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and comparing the word ‘with’ to other preposition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t tries to clarify how the meanings of ‘with’ are related and to explain the relation of the different meanings by metaphorical extensions and image-schematic transformations. The paper especially aims at examining, from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totypical meanings and the extensional and transformational meanings.

This paper focuses on proposing two main ideas: First, the English preposition ‘with’ has the polysemous property that the meanings are related, often in such a close and systematic way that we do not notice at first that more than one meaning exists at all. Secondly, preposition ‘with’ should be compared with other prepositions 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Grammar because learners often confuse it others.

Cognitive linguists claim that prepositions are highly structured polysemies, and the relations of their different meanings are usually achieved by metaphorical extensions. According to them, the polysemous property of the prepositions is achieved by the image schemas that are derived from our everyday interactions with the world. So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cognitive meanings of the English preposition ‘with’ and its

polysemous property.

The English preposition 'with' has a prototypical meaning that expands to different senses. The basic meaning of 'with' is 'together' and the meaning is extended widely into two meanings: 'company' and 'two sides'. The meaning of 'company' is extended to abstract meanings: protection, consignment, means, mix, simultaneousness, relation, cause, purpose, concession and agreement. The meaning of 'two sides' is extended to comparative meaning. At this time, metaphors enable us to understand extensional and abstract meanings with specific meanings. Therefore, the various meanings of 'with'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y are related and built a semantic network centered the prototypical meaning. After analyzing the senses of 'with', I compare it with other prepositions: 'to', 'at', 'from' and 'against'. 'With' and others have different basic meanings so we can discover the difference of meanings between them when they're used in a same meaning.

The analyses of a polysemous preposition based on Cognitive Grammar have great potential in offering a more teachable account of the multiple interpretations assigned to each preposition. It can successfully help English learners to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prepositions more easily with a minimum of technical jargon or grammatical explanation.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어휘학습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 중 전치사는 기능어로만 보고 명사나 동사와 결합되어 체계적인 의미 학습 없이 관용어로만 다루어서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전통 문법에서는 전치사의 의미를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의 의미로 풀이한 예가 많으며,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와 같은 단어는 내용을 가진 내용어(content word)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변형생성 문법에서도 전치사를 고유한 의미는 없고 구조의 빈틈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Bolinger(1977)와 Langacker(1976)를 필두로 시작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지 않고 -즉 맥락어(contextuals)가 아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기동(2005: 15)은 전치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장에 쓰이는 한 전치사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러 문장에서 쓰인 전치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의미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치사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각 의미들 간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고 사전에 열거되어 있는 전치사의 많은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치사에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여 얼핏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전치사의 공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with의 기본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한 문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다른 전치사와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제시한 제 1장 서론에 이은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with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의어의 개념 및 의미구조, 인지문법의 개념, 은유, 지속성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제 3장에서는 다양한 예문을 통해 with의 실제 의미 분석에 들어가는데, with가 가진 다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with의 다양한 의미를 인지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구성하고 이들 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with의 의미에 관한 분석 후, 제 4장에서는 전치사 with와 다른 전치사 to, at, from, against와 의미를 비교를 해본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연구 과제에 대한 결론과 본 논문이 가지는 교육적 함의를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with 분석에 사용된 인지언어학의 이론적 장치들을 살펴본다. 먼저, with가 지닌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다의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둘째, 인지문법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with의 의미 확장의 주요 기제가 되는 Lakoff & Johnson의 은유에 대해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Hopper & Traugott의 지속성의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with의 인지적 의미와 각 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2.1 다의어

Taylor(1995)는 자연언어의 많은 범주가 다심적(polycentric)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즉 범주의 각 구성원이 원형과의 유사성을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는 다의어라는 것이다.

아래의 문장들을 통해 climb의 의미가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변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1)은 climb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이다.

(1) The boy *climbed* the tree.

(1)은 ‘소년이 나무를 기어올랐다’라는 의미이다. (1)의 climb은 다리를 상당히 힘들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Taylor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동사 climb의 의미를 예시하는 문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항상 (1)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1)과 같은 문장을 동사 climb의 핵심의미로 간주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1)에서 본 climb의 기본 의미는 가지되, 약간의 의미 변화가 나타난다.

(2) The locomotive *climbed* the mountainside.

(2)는 ‘기차가 산허리를 타고 올라갔다’의 의미이다. (2)에서 기관차의 이동은 (1)에서 묘사된 상향이동과 유사성이 있다. 기어오르는 소년의 다리가 나무에 접촉하듯, 기차의 바퀴도 비슷한 방식으로 산허리와 접촉한다. 또한 둘 다 이동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며 힘들게 진행된다.

다음 문장은 climb의 의미에 있어 상향이동의 움직임만이 부각되어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는 예이다.

(3) The plane *climbed* to 30,000 feet.

(3)은 ‘비행기는 30,000 피트까지 올라갔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1, 2)에 나타나있는 ‘기어 다니기’라는 원래의 의미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비행기의 상향이동만이 묘사된다. 하지만 상향 이동하는 모든 것이 climb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예로 하늘 높이 솟구치는 독수리나,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은 climb으로 기술하나, 하늘로 던진 공,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climb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아래의 (4)에서는 climb이 가진 상향이동의 의미가 다시 변화하여 나타난다.

(4) a. The temperature *climbed* into the 90s.

b. Price are *climbing* day by day.

(4a)는 ‘온도가 올라가서(온도계 수치상) 90도가 되었다’의 의미이고, (4b)는 ‘물가는 날마다 오르고 있다’라는 뜻이다. Taylor는 (1, 2, 3)의 climb의 상향이동이 공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4)의 상향이동이 수치 척도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4)의 climb의 의미는 은유화 과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시말해서 (4)의 문장은 (1, 2, 3)과 일련의 공통 속성을 가지나, 그 속성이 적용되는 영역이 다르다.

아래 (5)는 climb의 ‘상향이동’의 의미보다는 ‘기어 다니기’의 의미에 근접한 문장들이다.

(5) a. The boy *climbed* down the tree and over the wall.

b. We *climbed* along the cliff the edge.

위 예문 (5a)는 ‘소년은 나무를 기어 내려와 담을 넘어갔다’의 의미이고 (5b)는 ‘우리는 벼랑 끝을 따라 기어갔다’라는 뜻이다. (5a, b)에서 climb 은 (1)에서 사용된 ‘기어 다니기’라는 의미와 관계가 있으나, 상향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주어가 따라가는 경로만을 표시하고 있다.

Taylor(1995: 108)는 climb의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공통적인 핵심의미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의미들 간의 ‘의미 연쇄’를 통해서 연관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의미 A는 어떤 공유된 속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의미 B에 연결되

고, 의미 B는 의미 C로 확장되어 가는 근원이 되고, 의미 C는 의미 D, E 등으로 동일한 방식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다의적 범주는 다소 별개이면서도 관련성이 있는 많은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다의어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관련성이다.

Lakoff(1987)에 의하면 하나의 낱말이 단일 범주에 속하는가, 혹은 다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 한계가 불분명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다의관계(polysemy)란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sense)를 지닌 것이며, 다의관계에 있는 낱말을 다의어로 정의한다고 한다. 여기 ‘둘 이상의 의의’란 다름을 뜻하며, ‘관련된 의의’란 같음을 뜻하는데, 그 중 의미의 다른 모습을 같음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의관계이다. 예를 들어, 영어 동사 run의 경우 “It’s difficult for Harry to *run* into the woods.”와 “It’s difficult for the road to *run* into the woods.”에서 쓰인 run의 의미는 다르다. 두 문장은 해리가 숲 속으로 달려가는 것과 길이 숲으로 이어져 있는 의미로 두 상황은 근원적으로 다르지만, 그 의미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의어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with의 의미들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 의미와 확장된 의미 간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존재하므로 다의적 특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다의어를 개별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익힐 수 있을 것인가? Miller(1976)는 다의어에서의 일반적인 핵심의미가 존재함을 밝히고 의미의 확장 과정을 활용한 교육적 적용가치를 실증하였으며 Aitchison(1994)에서는 over와 old의 분석을 통하여 ‘원형이론’이 다의어의 문제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원형이론의 주된 내용은 첫째, 하나의 범주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형적인 원형(prototype)과 그 주변 적 의미로 구성되는 원형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한 범주의 구성원들이 필요충분조건의 자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상호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그물망과 같은 가족유사성적인 성질이 있다. 셋째, 범주와 인접범주의 경계는 연속체적인 성격이 있어 그 사이에 언어요소들이 존재한다.

원형이론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처럼 다의어는 원형적 의미에서 비원형적 의미로 의미가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은 공시적·통시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결과 다의어는 원형의 의미와 확장 의미를 중심으로 방사형의 범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원형이론의 두 번째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성원들 상호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의해 형성되는 복잡한 그물망을 인지문법에서는 의미망 구조라고 하는데 다의적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확장원리에 따라 의미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요컨대 다의어는 사전상의 순차적 배열이 아니라 유기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사전을 통해 무조건 다의어의 쓰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연관성과 의미 확장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의어를 학습할 수 있다.

2.2 인지문법의 개념

먼저 인지심리학이란 광의의 일반적인 정의로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 하는가’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Descartes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특징은

인지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등의 인지적 활동을 하며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종 생활 장면 내에서의 인간 내적, 외적 자극들에 대하여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또 산출해 내는 고등정신 활동들인 것이다. 마음은 이러한 ‘심적 과정(processes)’과 그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내용(contents)’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심적 과정들에 의해 획득, 보유, 산출, 활용되는 지식, 즉 마음의 내용을 ‘표상(表象 representations)’이라 한다. 인지심리학은 인지의 내외적 정보의 처리과정과 지식 표상의 본질을 경험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주의, 형태지각, 학습, 기억, 언어 처리, 문제 해결적 사고, 추리, 판단과 결정 등의 인지과정들을 중심으로 인간 마음의 과정적, 내용적 본질을 경험적으로, 특히 실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체계로 간주하는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 인간 내외적 정보의 내용을 심적 표상으로 형성, 보유, 변환, 산출, 활용하는 과정들을 인지과정이라 한다. 이것을 인지학습과 관련시켜 보면 인지학습이란 인간의 행동보다는 앞서 말했듯 정신적인 과정에 비중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지문법이란 이 인지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Langacker에 의해 처음 시도되고 발전된 이론으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인 편이다.

Langacker에 의해서 제안된 인지문법은 언어를 인지의 필수적인 면으로 간주하고, 문법은 본유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지문법은 또한 언어학적 의미론에 대한 개념론적 설명을 전제하는데, 개념론적 설명이란 동일한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능력의 인정을 말한다. 모든 문법적 요소는 개념적인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문법은 본질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으로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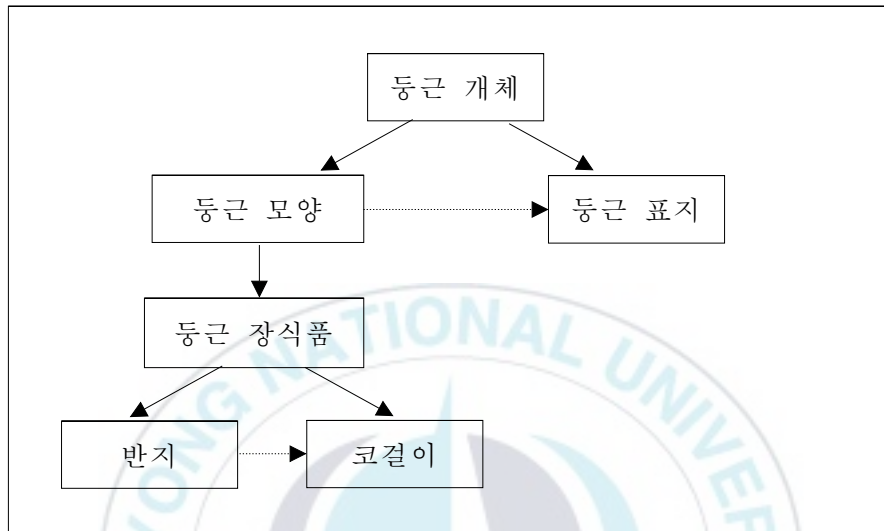
주된다. 따라서 문법은 개념적 내용을 구조화하고 상징화하는 것이다.

인지문법에서는 문법구조를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미구조와 음운구조 사이의 상징적 연결고리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인지의미론의 기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의미는 개념화로 환원된다. 둘째, 자주 쓰이는 표현은 서로 관련된 의미망을 이룬다. 셋째, 의미구조는 인지영역에 관련하여 특징지어진다. 넷째, 의미구조는 바탕에 모습을 부과함으로써 구조의 값을 끌어낸다. 다섯째, 의미구조는 관습적 영상을 포함한다. 즉 의미구조는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한다. 본 논문에서 with의 다양한 의미들은 이러한 인지문법을 바탕으로 분석 되어진 것이다.

이기동(2000)에 따르면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것을 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미론은 사고 및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개체의 구조 분석과 명시적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 개념화라는 용어 속에는 고정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개념화 감각, 운동, 정서적 경험, 그리고 사회·물리·언어적 맥락의 인식이 포함된다.

의미망(sense network)이란 한 낱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들이 관련된 의미의 망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ring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그 원형적 의미는 반지인데, 의미가 확장되어 코걸이를 지칭하기도 한다. 양자의 공통성은 둥근 개체의 장식품이며, 차이점은 크기가 다른 점이다. 이 경우 공통점인 둥근 모양의 장식품에서 둥근 모양만 추출하고 장식 기능을 빼면, 둥근 물체의 개념이 추출된다. 다시 물체의 개념을 빼면 둥근 개념만 포착된다. 결국 둥근 물체와 둥근 흔적으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둥근 개체와 같

은 도식이 나오는데, 이 관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ring의 의미망

<그림 1>에서 의미망은 도식(schema)과 확장(extension)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도식관계는 실선 화살표로, 확장관계는 점선 화살표로 표시되는데, 코걸이는 반지의 확장이며, 동근 장식품은 반지와 코걸이 둘 다의 도식이다. 요컨대 ring의 의미는 <그림 1>의 전체 망과 동일시되며, 그 원형적 의미는 반지이다.

셋째, 낱말의 의미는 인지영역(cognitive domains)을 통하여 규정된다.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이 전제된 개념이 주어진 개념의 출현과 특징화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직각삼각형을 전제로 하는데, 이처럼 한 특정 개념을 적절히 명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체계 속의 인지영역과 관련지어야 한다. 인지적으로 더 환원할 수 없는 원초

적 표상영역을 기본영역이라고 하는데, 시간영역, 2·3차원의 공간영역, 색채영역, 음조영역 등이 있다.

넷째, 낱말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 어떤 바탕(base)에 모습(profile)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의 경우 기능, 모양, 다른 식기류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한 낱말의 의미적 바탕은 여러 인지영역의 집합체일 수 있다. 그 바탕의 어떤 부분이 특이한 단계의 현저성으로 높여져서 초점으로 쓰이게 될 때, 모습이 된다. 예컨대,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쭉한 물체: 꼬지, 친족망: 삼촌 등에서 전자는 바탕이며, 후자는 모습이다.

다섯째, 영상(imagery)은 주어진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말한다. 영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포함되는데, 앞에서 본 바탕-모습, 대상의 규모, 구체성의 층위, 원근화법 등이 있다.

2.3 은유

은유에 대하여 Reddy(1979)는 영어의 백가지도 넘는 언어표현을 통해 아이디어가 물건으로 비유되거나 생각이 도관을 따라 전달되거나 용기 속에 넣을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으며, Saeed(1997: 300)는 언어적 지식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인식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생각의 틀을 언어에 반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은유라고 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대한 은유적 표현들을 분석한 Lakoff and Johnson(1980)의 연구는 은유를 단지 수사법의 한 종류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은유에 사용되는 각 개념들 간에는 인지적 연관성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며 은유가 사고와 언어, 그리고 세계에 대한 경험과 언어의 문제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개념적 은유는 어떠한 개체의 개념(근원영역)에 대한 경험을 다른 한 개념(목표영역)에 대한 경험에 투사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추상적 개념인 <인생>을 <여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여행 영역에 대한 경험과 인생 영역에 대한 경험사이에는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목표 영역에 대한 근원영역의 은유적 투사는 비대칭적이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은유적 표현들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물리적 경험에 근거해서 형성되어진다. 또한 개념적 은유는 추상적 개념을 좀 더 구체적 개념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체험적 유사성을 근거로 의미가 확장되어 언어의 창조적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Lakoff and Johnson(1980)에 따르면 은유의 본질은 어느 한 영역의 개념을 통해 다른 영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보통 보다 구체적이고 현저한 것이 원천영역(source domain)이 되고, 보다 추상적인 것이 목표영역(target domain)이 되는데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원천영역을 응용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 은유는 다의어인 with의 기본 의미와 확장된 의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with의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확장된 의미로 변화해 가는 현상은 바로 은유적 확대(metaphorical extens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2.4 지속성의 원리

한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은유적 확대를 통해 다른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어지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의미는 근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속성(persistence)이라고 한다 (Hopper & Traugott 1993).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의미의 변화가 비약적으로 전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구조나 의미에 대한 이후의 제약이 이전의 의미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형태가 어휘 항목에서 문법 항목으로 문법화를 겪게 될 때, 원래의 어휘적 의미의 일부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고수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어휘적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법적 분포에 대한 제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성의 원리라고 일컬어져 왔다(Hopper 1991).

지속성의 원리에 따르면, 한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은유적 확대가 일어난 후에도 본디 고유한 자질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은유라는 과정을 통해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으로 사상될 때 근원영역의 위상적 특징은 목표영역에 그대로 보존되어진다. 그러므로 은유에 의해서 근원영역의 개념적 지식과 추론구조가 그대로 목표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with 역시 은유적 확대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계속 보존된다. 예를 들어 with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 의미는 ‘~와 함께(together)’라는 근본적 의미 자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을 가지는 의미들은 본래의 기본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다.

Ⅲ *with*의 기본 의미 및 확장 의미

이 장에서는 먼저 *with*의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with*가 사용되는 문장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 의미가 어떻게 인지 문법적 이론 내에서 동반, 보호/ 위탁/ 수반/ 지참, 도구/재료, 혼합, 소유, 동시, 연관성, 원인, 목적, 양보, 동의, 상대, 비교의 의미로 확장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의미들을 토대로 의미망을 구축해 본다.

3.1 *with*의 기본 의미

먼저 ‘*with*’의 기본 의미를 추출해 내기 위하여 기존의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세분화된 ‘*with*’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Concise Oxford Dictionary*(COD)와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LDCE)를 참고하였으며 이 두 사전에 나타난 *with*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COD	LDCE
1.	in antagonism to, against	in the present of; beside
2.	In or into company of or relation to among, beside	having, possessing
3.	agreeably or in harmonious relations to	by means of
4.	having, carrying, possessed of, characterized by.	having as material or contents
5.	in the care or charge or	in support; in favor of

	possession of	
6.	by use of as instrument or means.	against
7.	by addition or supply or acquisition or possession of as material	in the same direction as
8.	in same way or direction or degree or at the same time as.	at the same time as
9.	because or by operation of, owing to	equally by comparison to
10.	displaying or so as to display, under favorable or unfavourable circumstances of	(separate) from
11.	in regard to, concerning, in the sphere of, in the mind or view of	in spite of
12.	despite, notwithstanding, the presence of.	because of(having)
13.		in the care of
14.		concerning, in the case of
15.		(joined) to
16.		(as a command): Down with school
17.		to be chosen by
18.		in with a friend of(a person)
19.		with it(sl) dressing, thinking be, having, or being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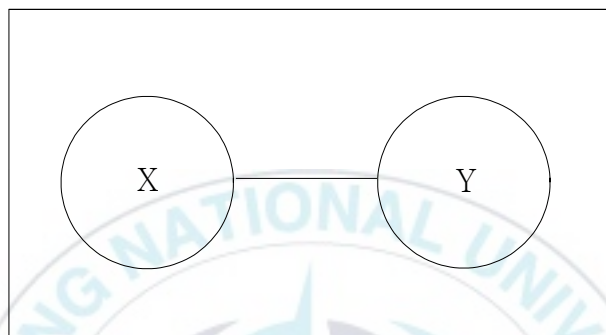
		most modern way.
20.		with me/you usu nonassertive following my/your argument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두 사전에서는 ‘with’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 의미에 대하여 세분화, 열거하고 있다. 사전에 정의된 의미는 그 배열의 전 후 관계에 따라 먼저 나온 순서대로 그 강도나 용도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Kelley & Stone 1975: 65).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두 사전에 나타난 의미는 그 의미의 순서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든다면 LDCE에서는 ‘having, possessing’이 두 번째 순서인데 COD에서는 네번째 순서이다. 더욱 극단적인 예로는 LDCE에서는 여섯번째 순서인 ‘against’의 문장의 의미가 COD에서는 첫번째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두 사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with’의 의미가 다른 동의어처럼 대체적으로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Caramazza & Grober: 1976). COD의 경우 ‘with’의 의미가 1번부터 8번까지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9번부터는 추상적 의미이거나 추상적 색채가 짙다. LDCE의 경우도 유사한 특성을 띄고 있다. 즉 1번부터 7번까지는 구체적 의미의 색채가 짙고 순서가 내려 갈수록 추상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구체성과 추상성을 띄는 의미들 사이에도 동질성이 엄연히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질성을 이루는 공통적 의미가 ‘with’의 기본 의미라 할 수 있다.

이기동(2005: 432)에 따르면 with의 기본 개념은 togeth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 함께(together)’라는 개념은 ‘with’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에 ‘함께하는’

혹은 ‘더불어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있음을 뜻한다. 그 대상을 각각 X, Y라고 한다면 X with Y라는 논리가 성립하며 X와 Y는 어느 주어진 장소나 상황에서 X와 Y가 상호 작용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 전치사 with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이기동: 2005)

이러한 논리적 바탕위에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6) a. He lives *with* his uncle.
- b. She is staying *with* a friend.
- c. What *with* high prices, and what *with* the badness of the times, they find it hard to get along.
- d. Are you staying *with* me?

(6a)의 경우 X에 해당하는 he와 Y에 해당하는 his uncle이 어떤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6b)의 경우 X에 해당하는 she와 Y에 해당하는 a friend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a, b)에서 X와 Y가 함께하는 공간

은 주택을 의미하는 매우 구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c)의 경우는 매우 추상적이다. X와 Y가 함께하는 공간은 ‘hard to get along’한 영역으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환경 영역 내에서 X에 해당하는 people이 Y에 해당하는 high price와 the badness of the time과 함께 (together)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6d)의 경우도 (6c)의 경우와 비슷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with는 (6a, b)와 같이 구체적인 의미에서 (6c, d)와 같은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d)의 경우 X와 Y가 함께하고 있는 영역은 X, Y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이해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즉, 이해의 관계가 공통관심사인 X와 Y의 의견이 함께(together)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장이 바로 (6d)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문장에서 사용된 with의 의미의 기저에 ‘~와 함께’ 또는 ‘~와 더불어’ 상호 작용하는 기본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with’가 사용되는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2 with의 의미 확장

with의 의미 확장은 영상 도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도식은 다른 도식들과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영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with의 모든 의미들은 다른 도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 이는 각각의 의미들이 with

의 기본적인 의미들과 서로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with의 확장된 의미의 도식들은 모두 기본적 의미가 되는 도식에서 파생되어 조금씩 변화를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다르게 쓰인 문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도식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 의미에서 나온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 다음에서는 with의 기본 의미가 어떻게 확장 되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2.1 동반

with의 기본 의미인 ‘~와 함께(together)’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X와 Y가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 인해 ‘동반’된 관계를 나타낸다.

(7) a. She is in the kitchen *with* her f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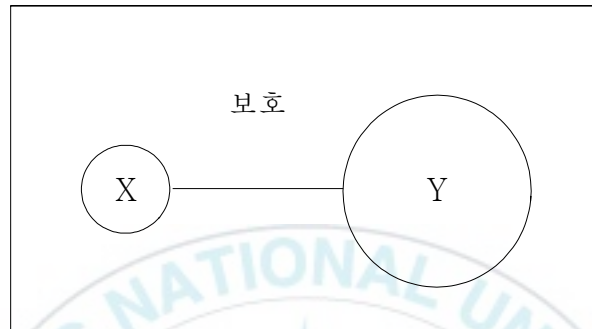
b. He stays *with* his friend.

(7a)의 경우 with는 두 사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부엌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동반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7b)의 경우 명확한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와 그의 친구는 어떠한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며 동반되어 함께 지냄을 with가 의미하고 있다.

3.2.1.1 보호/ 위탁/ 수반/ 지참

이러한 동반의 의미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X와 Y가 모두 사람이며, 이

들이 같은 장소에서 있을 때 X와 Y의 성질에 따라 X가 Y의 ‘보호’를 받는 관계로 확대되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3> X가 Y의 보호를 받는 관계

X가 Y의 보호를 받는 관계의 의미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8) a. The nephew is staying *with* his grandparents.
- b. The children stayed *with* their teacher while they were on vacation.

(8a)의 경우 조카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조부모들과 같은 장소에 동반되어 있으면서 조부모들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8b)의 경우 아이들은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선생님의 지도 및 보호아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보호의 의미는 X가 사물이고 Y가 사람인 경우 이들이 같은 장소에 있을 때 X가 Y에게 ‘위탁’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9) The diamond remained *with* her mother.

(9)의 경우 X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는 Y에 해당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동반되어 위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보호의 개념이 확대되어 그 물건에 대한 수호와 관리의 책임까지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X와 Y가 어느 장소나 상황에 함께 동반될 때 *with*의 의미는 ‘수반’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한 예로 어느 과정이 일어날 때 X가 이 과정 속에 있고 Y가 X의 정신의 일부 일 때 Y는 X에 수반되는 것으로 의미가 추상적으로 확대된다.

(10) a. He heard the story *with* calm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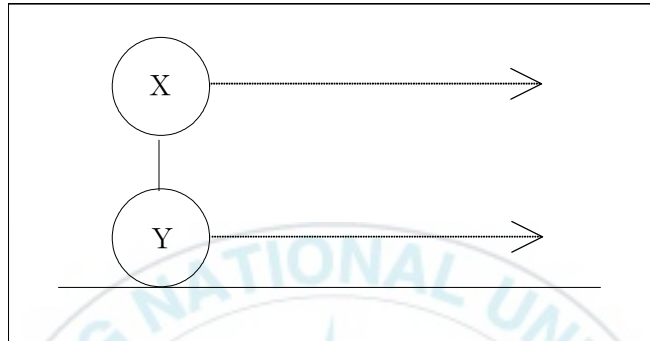
b. They treated the jewelry *with* care.

c. The student spoke *with* confidence.

(10a, b, c)에서 각각 Y에 해당하는 침착, 주의, 자신감은 모두 사람의 정신의 개념에 속한 일부분으로서, 청취할 때, 취급할 때, 말을 할 때 수반되는 정신적인 상태들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0a)에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신 상태인 침착함도 함께 수반되었다는 뜻이며, (10b)에서 그들이 보석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집중함이, (10c)에서 그 학생이 말을 할 때 그의 정신 상태인 자신감도 같이 수반되었음을 *with*가 나타낸다.

다음에서는 X와 Y는 움직이는 개체이고, 문장 속의 동사가 두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with*의 의미가 어떻게 은유적으로 확장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그림 4>와 같이 X와 Y가 함께 이동하는 관계는 X와 Y가 동반되어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림 4> 동반되어 이동하는 X와 Y

다음의 문장들은 X와 Y가 모두 동반되어 이동함을 나타낸다.

- (11) a. I went to the shop *with* her.
- b. I take a walk *with* my dog every morning.
- c. She came back home *with* her students.

(11a)에서 나는 그녀와 함께 가게에 갔다는 말은 나와 그녀는 동반된 관계에서 함께 이동함을 나타낸 것이며 (11b)에서 매일 아침 나와 개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은 내가 개를 동반하고 이동하였음을, (11c)에서 그녀가 어제 학생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는 것은 그녀가 학생들을 동반하고 함께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with*의 동반의 의미는 X가 사람이고, Y가 사물이면 ‘지참’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인 X가 움직이면, 사물인 Y는 X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문장에서 *with*의 지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12) a. Take this book *with* you, and give it to your father.
b. The postman came *with* some package in his hand.
c. The thief made off *with* my money.
d. The dog ran away *with* the doll.

(12a, b, c, d)는 Y에 해당하는 책, 소포, 돈, 인형이 X에 해당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함께 지참되어 이동함을 나타낸다.

3.2.1.2 도구/ 재료

*with*는 X와 Y가 더불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때 X가 어떤 과정 속에서 행위자로 쓰이면 Y는 이 행위자에 동반된 ‘도구’로 풀이된다. 다음의 문장에는 어떠한 일의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 X와, X가 사용하는 도구 Y가 동반되어 도입되어 있다.

- (13) a. We cut the meat *with* knife.
b. I wrote the letter *with* his pen.

(13a)는 고기를 썰는 과정에서 행위자인 사람에게 도구로서 칼이 동반되었으며, (13b)는 필기를 하는 과정의 주체인 나에게 도구인 펜이 함께 동반되었음

을 나타낸다.

X와 Y가 어떤 과정에 함께 참여해 있을 때, X가 용기이면 Y는 ‘재료’로 풀이된다.

- (14) a. She filled my cup *with* milk.
b. The truck is laden *with* baggage.
c. The chair was stuffed *with* straw.

(14a)는 채우기의 과정에 있어서 용기에 해당하는 컵과 그 컵을 채우는 재료로서 우유가 함께 존재해 있다. (14b)는 싣기의 과정에 용기에 해당하는 트럭과 그 트럭을 채우는 재료로서 짐이 함께 존재해 있으며, (14c)는 채우기의 과정에 용기에 해당하는 의자와 그 의자를 채워 넣는 재료로서 짚이 함께 도입되어있다.

3.2.1.3 혼합

섞는 과정에도 두 가지 이상의 개체가 동반되어야 한다. *with*는 이러한 혼합의 과정에 동반된 개체를 도입한다.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with*가 혼합의 의미를 가지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5) a. He took a coffee *with* a little sugar.
b. My mother heat milk *with* honey.

(15a)에서 그는 커피에 설탕을 섞어 마셨다는 의미는 *with*를 통해 커피와 설탕의 혼합을 나타내며, (15b)에서 어머니는 우유에 꿀을 넣어 데우셨다는 의미 역시 *with*를 통해 섞기의 과정에 우유와 꿀이 동반되어 혼합됨을 나타낸다.

3.2.1.4 소유

다음에서 주어진 X는 장소로 풀이될 수 있는 개체이고, Y는 X에 동반되어 가지게 되거나 포함된 개체로 풀이된다. 이때 *with*는 ‘소유’의 의미가 된다. 다음의 문장들은 각각의 공간이나 장소가 개체들을 포함하여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 (16) a. The cellar is infested *with* rats.
b. The house was adorned *with* expensive furniture.
c. The field is covered *with* pretty flowers.

(16a, b, c)에서 X에 해당하는 장소인 지하실, 집, 들판은 각각 Y에 해당하는 쥐, 가구, 꽃들과 같은 개체들을 소유하여 포함하고 있다.

위의 (16)에서 본 문장에서 각 장소가 포함하고 있는 소유물들은 모두 유형의 개체들이었다. 그러나 소유물은 단순한 유형의 개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천부적인 능력이나 책임 같은 것도 어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소유물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무형의 것이다.

- (17) a. She is gifted *with* artistic talent.
b. He was burdened *with* intense responsibilities.
c. My grandparents have been blessed *with* good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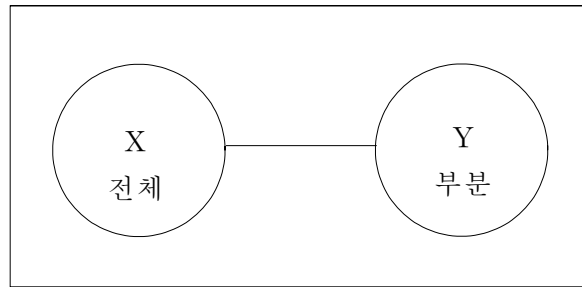
(17a, b, c)에서 예술적 재능, 책임, 건강은 X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 Y로 *with*는 X가 Y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소유의 개념은 사람 및 장소와 다른 어떠한 대상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들 X와 Y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아래의 문장은 X가 사람이나 장소가 아닌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Y 역시 X가 포함하고 있는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 (18) a. The enterprise was fraught *with* danger.
b. The lecture was replete *with* humor.

(18a)는 그 사업에는 위험이 많았다는 의미로 X에 해당되는 사업이 Y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18b)의 강의에 유머가 넘쳤다는 의미 역시 추상적인 개념의 강의를 유머라는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치사 *with*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도 쓰인다. 이 때 *with*의 의미는 각각 명사인 X와 Y에서 전체와 부분사이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며 이 관계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5> 전체와 부분 기본 도식

<그림 5>와 같이 Y가 X의 일부분임을 나타내는 경우 아래의 문장에 나타난 것처럼 X는 Y를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를 다음의 문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9) a. We want a room *with* two beds.
 b. The girl has a bicycle *with* four wheels.
 c. My parents bought a house *with* a pond.

(19a)는 방이 전체로서 부분으로서의 침대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이며, (19b)에서는 자전거가 전체에 해당되며 부분으로서 바퀴를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19c)는 집에 연못이 있는 형상으로 마찬가지로 전체와 부분의 소유 관계가 형성된다.

다음은 X가 사람이고, Y는 신체의 일부이거나 X가 가지고 있는 개체로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20) a. The teacher is a woman *with* gray hair.

b. We saw a strange woman *with* a c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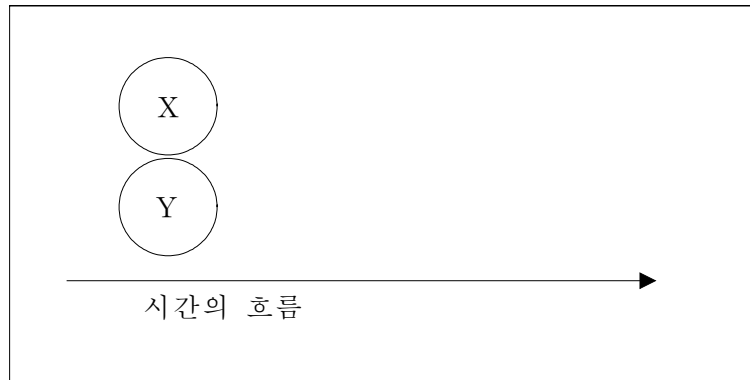
c. The man *with* a scar on his face stole the money.

(20a)는 외모의 영역에 X에 해당하는 선생님과 Y에 해당하는 신체 일부분인 흰머리가 함께 존재하는 관계이며 이것은 선생님이 흰머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b)도 마찬가지로 외형의 영역에 여자와 지팡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여자가 지팡이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c)에서는 생김새의 영역에 그 남자와 흉터가 함께 도입된 것으로 그 남자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관계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과 그것의 일부분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전체가 부분을 소유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2.1.5 동시

X with Y에서 X와 Y는 사람이나 사물뿐만이 아니라 상황이나 상태가 될 수 있다. 아래 <그림 6>과 같이 X라는 상태나 상황이 Y라는 상태나 상황을 동반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두 상황, X와 Y가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림 6>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나 상태

아래의 문장들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예들이다.

- (21) a. He stood *with* his back against wall.
- b. Mary left the kitchen *with* the kettle boiling.
- c. He sat reading *with* his wife washing dishes.

(21a)에서 그가 일어서 있는 것과 벽에 기대는 것은 동반된 행위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동시에 일어났다. (21b)에서 Mary가 부엌을 내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난 것과 주전자가 끓고 있는 상황 역시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으며, (21c)에서 그가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는 행위와 그의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행위도 함께 일어났다. 위의 예문 모두는 두 행위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동시의 의미는 *with*를 통해 부여된 것이다.

다음에서 X와 Y는 모두 변하는 개념이고 이들이 함께 동반되어 있음은 X

와 Y가 동시에 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22) a. The rates of improvement vary *with* the quarter.

b. She is growing wise *with* the age.

c. The fashion trendy changes *with* the season.

(22a)에서 X에 해당하는 상승률은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Y에 해당하는 분기 역시 변할 수 있다. (22b)에서 X에 해당하는 인간은 시간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Y에 해당하는 나이도 역시 변하는 것이다. (22c)에서 패션 경향은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 함께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with*는 유형의 개체뿐만 아니라 무형의 정신적, 추상적 영역까지 확대되어 한 개념의 상태가 변화할 때 다른 개념의 상태 역시 동시에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3.2.1.6 연관성

X가 사건, 경우, 문제 등이고, Y가 사람으로 동반될 때 *with*는 사건, 경우, 문제와 동반된 사람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다음의 문장에는 각각의 사건이나 문제 등에 사람이 동반되어 연관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의 예들이다.

(23) a. What's the matter *with* you?

b. Such is the case *with* me.

c. It is the habit *with* her.

(23a)는 문제와 당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23b)에서는 어떤 진상이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23c)에서는 습관이 그녀와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with*는 각각 문제나 사건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때 *with*는 ‘~와 관련하여’라는 연관성의 의미로 사건이나 문제에 동반된 개체를 도입한다.

이러한 연관성의 의미는 X가 사람이고 Y가 집단이나 단체가 되면 서로 지속성을 띄고 관련되면서 은유적 장치를 통해 ‘소속’의 의미로 확장된다. 아래의 문장은 *with*가 소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24) a. He's *with* a large publishing company now.

b. I've been *with* IBM for seven years.

(24a)에서 그는 출판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그가 출판사에 소속되어 근무함의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4b)에서 나는 IBM 회사와 7년간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는 역시 IBM에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지내움으로써 IBM에 소속되어있는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속의 의미에서도 *with*의 의미는 확장되더라도 ‘*with*’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에 ‘함께하는’ 혹은 ‘더불어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있음을 뜻하는 *with*의 기본적 의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1.6.1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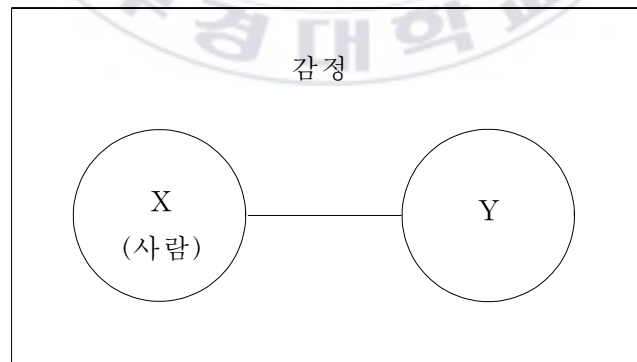
X가 어떤 상태인데, 이것이 Y와 연관되어 있음은 Y가 X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원인의 의미를 다음 문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5) a. He is in hospital *with* his eyes.

b. She is bent *with* age.

(25a)에서는 그가 병원에 있게 된 상황과 그의 눈은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존재해 있는데 그가 병원에 있게 된 상황은 그의 눈 때문이며, 결국 그의 안질환이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b)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허리가 굽어진 상태는 나이가 연관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그림 7>에서 *with*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Y는 다소 추상적이다. 이 때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 X에 해당하는 어느 사람이 Y에 해당하는 어느 추상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Y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림 7> 감정의 영역에 도입된 사람과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

이러한 *with*의 원인의 의미는 다음의 문장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 (26) a. I was happy *with* his decision.
b. He was disappointed *with* her answer.
c. She is excited *with* the company's expansion plan.

(26a)에서 X에 해당하는 나는 Y에 해당하는 그의 결정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었고, (26b)에서 X에 해당하는 그는 Y에 해당하는 그녀의 대답으로 인하여 실망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26c)에서도 X에 해당하는 그녀는 Y에 해당하는 회사의 확장 계획이 원인이 되어 흥분된 감정이 유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with*의 의미는 X와 Y사이의 연관성의 의미에서 보다 확대되어 감정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X에 해당하는 상황은 Y에 해당하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예들이다.

- (27) a. The family came to an end *with* his death.
b. We drew nearer to danger *with* every step.
c. Rain usually comes *with* a sudden change in the direction of the wind.

(27a)는 집안의 종말과 그의 죽음은 연관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Y에 해당하는 상황인 그의 죽음이 원인이 되어 X에 해당하는 상황, 즉 집안이 몰락하였음을 나타낸다. (27b)에서 걸음을 옮기는 상황과 연관된 것은 우리의 위험인데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걸음을 옮기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27c)에서 비와 바람의 방향 변화는 연관된 상황이며 바람의 갑작스런 변화가 원인이 되어 비를 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1.6.2 목적

X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에 Y에 해당하는 의도나 생각이 연관되면 그 의도나 생각은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문장은 사람이 하는 행위에 의도나 생각이 연관됨으로써 결국 그 의도나 생각이 행위의 목적이 된 경우의 예들이다.

- (28) a. We met several times *with* a view to marriage.
b. The student came here *with* the idea of becoming a announcer.

(28a)는 우리가 여러 번 만난 행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동반됨으로써 결혼을 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되었다. (28b)에서 학생이 여기에 오게 된 상황과 아나운서가 되려는 생각이 동반됨으로써 바로 아나운서가 되려는 생각 혹은 의도가 학생이 오도록 하는 상황을 이끌어낸 목적이 되었다.

with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with는 어떤 상황과 명시된 목적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with의 목적의 의미에는 특정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 의도의 두 개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with의 기본적인 의미는 은유적 장치를 통해 확장된 것이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보존되어지는 지속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1.6.3 양보

X에 해당하는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개념인 Y가 연관되면 ‘양보’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다음의 문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9) a. *With* all her money, she is still unhappy.
b. *With* all their advantages, they are not a success.
c. *With* the best of intentions, he failed completely.

(29a)에서 X에 해당하는 그녀의 불행과 Y에 해당하는 그녀의 돈은 연관되어 있다. 상식적인 이해로 돈과 행복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을 것이나, 문장에서 돈과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공존한다는 것은 둘 사이가 양보나 대조적 관계임을 파악할 수 있다. (29b)에서 X에 해당하는 성공하지 못함과 Y에 해당하는 장점은 연관되어 있다. 이 둘 사이의 관련에서 with의 의미는 ‘~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대조적으로’라는 양보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29c)에서도 부정적 상황 X에 긍정적 개념 Y가 연관되어 with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with의 기본 의미는 은유적 장치를 통하여 양보의 의미로 확대되었으나, X와 Y가 함께 존재하는 with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2.1.7 동의

X와 Y가 같은 장소에 동반되어 있는 관계는 추상적으로 확대되어 X의 정

신 영역이 있는 곳에 Y가 있는 관계, 즉 X와 Y가 같은 생각을 갖거나 같은 의견을 갖는 ‘동의’의 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에서 with가 동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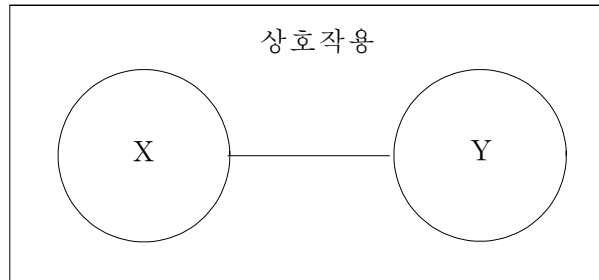
(30) a. I am *with* him there.

b. We're *with* you all the way.

(30a)의 경우, 나는 그 점에서 그와 동감이라는 표현은 나의 정신 영역과 그의 정신 영역은 동일한 공간에 함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의함을 의미한다. (30b)의 우리는 처음부터 너를 지지한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 및 의견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영역과 상대의 정신 영역이 동일한 공간에서 존재함으로서 동의한다는 의미가 된다.

3.2.2 상대

X와 Y에 해당하는 어느 두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함께함은 두 사람이 어느 상태나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때 with는 이 상호 작용 범위 내에 ‘상대’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림 8>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8> 상호 작용의 영역에 도입된 두 상대

아래의 문장을 통해 X와 Y가 *with*의 상대의 의미를 통해 도입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a. He was in argument *with* his landlord downstairs.
b. They are at war *with* each other.

<그림 8>의 도식을 참고로 하여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30a)에서는 논쟁의 상호 작용 영역에 그와 그의 집주인이 서로 상대가 되어 존재하고 있다. (31b)에서는 전쟁의 영역 내에 그들은 서로 전투의 상대가 되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을 주고받는 개념에도 기본적으로 X와 Y의 두 사람이 내포된다. 이 때 *with*는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화의 상황에서 *with*가 상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2) a. I spoke *with* the guy on various topics.
b. We discussed *with* the children for a long time.

(32a)에서는 대화의 영역에 있어 나에 대하여 대화의 상대자인 남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32b)에서는 토론의 영역에 있어 우리에게 대하여 토론의 상대자인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말을 주고받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별의 개념에도 반드시 상대가 되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with*는 이 이별의 개념에 상대가 된 두 사람을 도입한다.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이별의 상대로서 두 사람이 도입된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3) a. He parted *with* her at the gate.

b. He broke *with* his girl friend last year.

c. I've split up *with* him.

(33a, b, c) 모두는 이별이나 결별의 개념에 각각 그 상대가 된 두 사람이 도입되고 있다.

다음에서 형용사는 대인관계나 감정을 가리키고, *with*는 이들 관계나 감정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상대인 X와 Y의 두 사람을 도입한다. 다음의 문장에서 감정의 영역에 상대의 의미로 도입된 X와 Y의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4) a. The singer is very popular *with* the girls.

b. Are you familiar *with* the Parks?

(34a)에서 그 가수는 소녀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기서 *popular*의 감정의 영역

에는 인기의 대상과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 (34b)의 *familiar*의 영역에도 친근함을 가지는 사람과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다. 즉 친근함을 가지는 주체는 당신이고 친근함의 상대는 박 씨 일가이다. 이처럼 *with*는 상호 작용에 필요한 두 상대를 도입한다.

다음의 문장에 나타난 형용사는 앞의 영역과 관계가 있는데, X는 사람이고 Y는 앞의 상대이다. 이러한 경우, *with*는 사람인 X와 지식이나 앞의 상대가 되는 추상적인 개념인 Y를 도입한다.

(35) a. I am acquainted *with* the subject.

b. She is conversant *with* her works.

(35a, b)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주제나 작품은 사람에게 있어 지식이나 앞의 상대로 도입되었다.

*with*가 상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상대의 상호작용은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에 의해 구체화 된다. 다음의 문장들을 통해 상대의 상호작용이 문장 속의 동사에 의해 어떻게 달라 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6) a. They traded *with* the dealers.

b. The boy never shakes hands *with* girls.

c. The professor corresponds *with* students.

d. I don't want to fight *with* anyone.

위의 문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래, 악수, 서신교환, 싸움 등은 모두 두 편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이 두 편을 X와 Y라고 한다면 *with*는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상호 작용의 상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X와 Y의 관계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with* 자체가 우호 및 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함께 사용된 동사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된다. 이것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37) a. I agree *with*/disagree *with* him.

b. He sided *with* us.

c. We must associated *with* people of good character.

d. She always argues *with* him.

(37a)에서 X와 Y는 *with*와 결합하고 있는 동사 *agree* 와 *disagree*에 따라 상대는 우호적이 될 수도 있고 비우호적이 될 수 있다. (37b, c)에서 *with*는 함께 쓰인 동사의 의미에 따라 상대 두 개체의 관계가 서로 우호적임을 알 수 있으며, (37d)에서 *argue*라는 동사를 통해 두 상대는 논쟁의 대상, 즉 두 상대는 비우호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상대의 상호 작용 관계는 *with*와 함께 쓰인 동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with* 자체는 어느 주어진 상황에 반드시 포함되는 상대가 존재함 자체만을 의미한다.

3.2.2.1 비교

‘비교’의 개념에도 X와 Y의 두 상대가 필요하다. 다음의 문장에서 형용사는

비교나 대조의 관계를 가리키고, *with*는 이 관계 속에 들어오는 상대인 X와 Y를 도입한다.

- (38) a. The book is identical *with* his.
b. His achievement is incomparable *with* hers.

(38a)에서 그 책은 그의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로, *with*는 비교의 영역에 그 책과 그의 것, 비교가 되는 상대인 두 개체를 도입되고 있으며, (38b)에서는 비교의 영역에 그의 업적과 그녀의 업적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38a, b) 두 문장 속의 ‘identical’, ‘incomparable’과 같은 형용사는 두 비교되는 개체의 비교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설명해준다.

다음의 문장에서는 문장에 나타난 동사가 비교의 영역에 도입된 상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예들이다.

- (39) a. The triangle ABC coincides *with* triangle DEF.
b. His work contrasts *with* hers.
c. I differ *with* him about the meaning of the poetry.

(39a)에서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각각 비교의 상대로 존재하는데, 이 두 개체는 ‘coincide’라는 동사를 통해 일치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9b)에서 그의 작품과 그녀의 작품 역시 비교의 대상이다. 비교의 개념 내에 있는 두 개체는 ‘contrast’라는 동사를 통해 대조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9c)에서도 시의 의미에 관해 나와 그의 의견은 비교 상대가 되고 있다. 역시

‘differ’라는 동사를 통해 나의 의견과 그의 의견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with 자체에 유사 혹은 대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개념 내에 두 상대가 함께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with의 기본 의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3 *with*의 의미망의 구성

지금까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with의 다의적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with는 ‘~와 함께(together)’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확대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반의 의미, 상대의 의미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동반의 의미는 보호의 의미로, 보호의 의미는 다시 위탁의 의미로 확대된다. 또한 동반의 의미는 수반과 지참의 의미로 확대된다. 그 밖에 동반의 의미는 각각 도구 및 재료, 혼합, 소유, 동시, 연관성, 동의의 의미로 확대되는데 연관성의 의미는 다시 소속, 원인, 목적, 양보의 의미로, 상대의 의미는 비교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with의 기본적 의미와 이를 토대로 확대된 의미를 의미망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with의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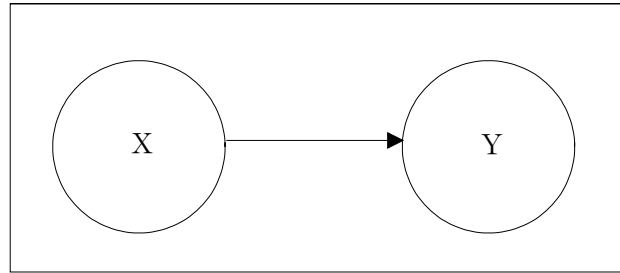
IV *with*와 다른 전치사들과의 의미 비교

이제까지 *with*의 기본적 의미와 이를 기초로 의미들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았다. *with*의 핵심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에 이르기까지 *with*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치사 각각은 제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문장에서도 여러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는데 전치사에 따라서 그 의미도 크게 달라진다. 다음에서는 *with*가 쓰이는 문장에 다른 전치사가 쓰일 때 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with*의 다양한 의미들과 다른 전치사들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먼저 *with*와 비교되어지는 *to*, *at*, *from*, *against* 각 전치사들의 기본 의미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특정 의미에 있어서 각각 *with*와의 비교를 하기로 한다.

4.1 ‘방향성’에 있어서 *to*와의 의미 비교

이기동(2005)에 따르면 X가 Y를 향하고 X의 목표(도달점)가 Y가 될 때 전치사 *to*가 쓰인다. 정적인 관계에서는 X가 Y를 향하고 있는 관계가 되며 동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X가 Y라는 도달점으로 움직이는 의미이다. *to*의 원형적 의미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전치사 to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이기동: 2005)

공간 관계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목표가 되는 지점까지 지나 그 밖의 측정도구를 움직여서 잴다. 이 때 목표가 되는 지점은 to의 목적어로 표현된다. 다음의 공간관계에서 Y의 지점은 X에서의 거리측정의 목표가 된다.

- (40) a. It is long way to the downtown.
 b. It is 20 miles from here to the bridge.
 c. Our house is near to the school.

(40a)에서 도심은 거리측정의 목표점이 되며, (40b)에서 Y에 해당하는 다리는 X에 해당하는 여기로부터의 거리측정의 목표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40c)에서 학교는 X에 해당하는 집에 대하여 거리 측정의 목표점 Y가 된다. 이러한 문장에서 보듯이 to는 기준점에서 목표점으로의 거리의 측정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X to Y는 X가 Y를 향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데, 아래의 (41)의 문장들에서는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X가 Y를 향하여 움직이는 관계를 to가

나타낸다.

- (41) a. John walked *to* Paris.
b. The girl ran *to* me.
c. My neighborhood moved *to* America.

(41a)에서는 John은 파리를 향하여 걸어갔고, (41b)에서 소녀는 내가 있는 쪽을 향하여 달려왔다. (41c)에서 나의 이웃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위의 문장에서 X에 해당하는 사람은 Y에 해당하는 목표로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이동의 양상은 문장에서 쓰인 동사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들에서 쓰인 *to*로 인하여 각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41)의 문장들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움직이는 개체이었으나, 다음의 (42)의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움직이는 개체이다. 먼저 다음의 두 문장을 살펴보자.

- (42) a. The boy threw the ball *to* me.
b. He threw me the ball.

위의 두 문장은 뜻이 같은 것으로 보통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두 문장의 뜻은 다르다. (42a)는 전치사 *to*가 있으므로 공이 그 소년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이 강조되고, (42b)는 공이 내게 던져져서 내가 그 공을 이미 소유하는 점이 강조된다.

다음에 쓰인 동사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뜻을 나타내는데, 말이 움직여서 말

을 듣는 사람에게 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말이 구체적인 물건과 같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43) a. She will speak *to* you.

b. He explained that *to* her.

위에서 각각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도 방향성이 나타난다. (43a)에서 그녀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43b)에서 그는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두 문장 모두 의사소통에 있어서 X에서 Y쪽으로의 전달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to*가 가진 방향성의 의미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with*는 단순히 어떤 관계나 사건에 사람이나 개체가 함께 도입된 것을 가리키는데 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to*는 두 도입된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방향성의 의미까지 포함되는 구체성을 띄고 있다. 이 두 전치사의 의미의 차이를 아래의 (44)의 예문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44) a. He compared the work *with* hers.

b. He compared the house *to* a fortress.

(44a)는 그 작품과 그녀의 것은 서로를 상대로 하여 동등하게 비교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44b)에서 그 집은 요새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되고 있다. 즉 Y에 해당하는 요새는 기준점으로, 이 Y를 향하여 X에 해당하는 집이 비교되고 있으므로 *to*의 의미를 통하여 비교에 있어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도 *with*와 *to*는 비교의 영역에서 각각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

(45) a. In the presence of death the greatest are equal *with* the humblest.

b. The manager is not equal *to* the task.

(45a)는 죽음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비천한 사람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가장 위대한 사람과 가장 비천한 사람이 상대로서 도입되어 죽음의 영역에서 비교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5b)는 관리자의 능력이 그 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의 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관리자의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으로써 비교에 있어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to*를 통하여 어떻게 감정의 영역에서 방향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역시 *with*와 그 의미를 비교해본다.

(46) a. I am familiar *with* the food.

b. The name is very familiar *to* me.

(46a)에서 친근함의 감정의 영역에 나와 그 음식이 함께 존재함을 *with*가 나타내고 있지만, (46b)에서 그 이름이 나에게 친근하다는 의미는 *to*를 통하여 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름이 친근함을 나타내는 방향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와 그 이름의 구체적인 관계를 형용사인 ‘familiar’가 나타내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는 같은 동사가 쓰였을 때 *with*와 *to*가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47) a. The liberals joined *with* the conservatives in that effort.

b. You should never join an electric wire *to* a water pipe.

(47a)는 주어인 자유주의자들이 *with*의 목적어인 보수주의자들과 동등하게 만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의미이나 (47b)는 수도관을 기준으로 전기선을 가져다 대는 의미로서 *to*로 인해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4.2 ‘원인’에 있어서 *at*과의 의미 비교

이기동(2005)에 따르면 X *at* Y에서 *at*은 어느 개체가 X선상에서 점으로 생각되는 장소 (Y)에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at*은 자극-반응과 같은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도 쓰이는데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여 보자.

(48) a. She shouted *to* me.

b. She shouted *at* me.

전치사 *to*가 쓰인 (48a)는 그녀가 무엇을 나에게 전달하려고 큰 소리로 말한 것이고, *at*이 쓰인 (48b)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한 동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자극-반응의 관계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동사가 쓰인 문장에

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 (49)에서 X는 주어가 갖는 마음의 상태이고 Y는 이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 (49) a. We were disgusted *at* the dirty room.
b. The people rejoiced *at* the news.
c. She was angry *at* their cruelty.
d. I was displeased *at* her behavior.

(49a)에서 그 더러운 방에 대한 반응으로 구역질이 났다는 것을 *at*이 나타내며, (49b)에서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 반응으로 기뻐하는 것을 나타낸다. (49c)에서는 그들이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뜻이며, (49d)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불쾌해졌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at*의 의미를 통해 나타낸다.

아래의 문장 (50)에서 순간적으로 놀람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at*이 쓰이면 *at*의 목적어가 주는 자극을 받고 곧 주어가 놀람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자극-반응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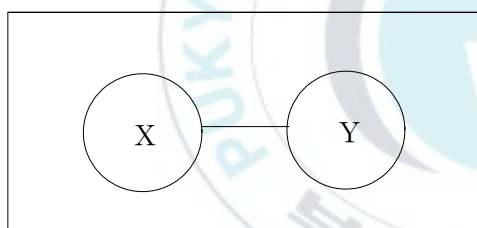
- (50) a. I was surprised *at* the news.
b. I was shocked *at* his appearance.
c. He was amazed *at* her skill.

위의 (50)에서 살펴보면 *at*뒤에 각각 쓰인 뉴스, 모습, 기술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놀람의 감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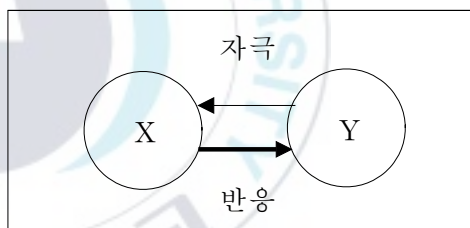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치사 ‘with’는 X가 어떤 상태인데, 이것이 Y와 연관되어 있음은 Y가 X의 원인으로 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치사 ‘at’은 ‘원인’에 해당하는 자극으로 인해 그 결과로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X *at* Y에서는 X가 Y의 자극을 받고 Y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관계를 표시한다. 이에 반해 with는 at보다 덜 명시적이다. 즉 X와 Y사이의 관계가 있음만을 나타내므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자극-반응의 관계로 풀이될 수 있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감정의 영역에서 X와 Y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 나타낸다.

전치사 with와 at의 의미를 도식화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with



b. at



<그림 11> 전치사 with와 at의 의미 비교 도식(이기동 1991)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전치사 with와 at의 의미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1) a. My mother is often impatient *with* me.

b. I was impatient *at* the de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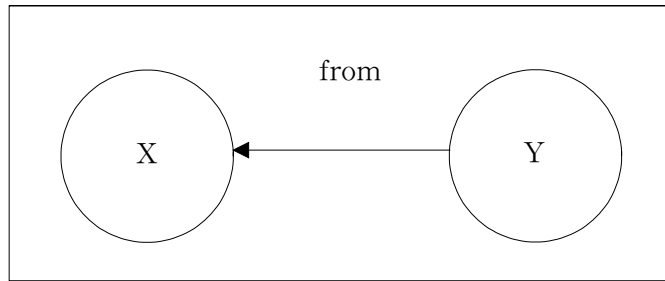
(52) a. He was annoyed *with* me for being late.

b. He was annoyed *at* the mistake.

(51a)에서 감정의 주체인 X에 대하여 Y에 해당하는 *with*의 목적어는 조금 한 마음과 관련된 대상만을 나타내나, (51b)에서 Y에 해당하는 *at*의 목적어인 일이 지연됨은 조금한 감정을 만드는 자극이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52a) *be annoyed with*에서는 그가 화가 났던 것이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화가 난 감정이 나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52b) *annoyed at*에서는 실수가 화를 불러일으킨 자극이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with*의 목적어는 어떤 사람의 화가 난 감정과 연관된 대상을 가리키나, *at*의 목적어는 화가 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with*는 *at*에 비하여 의미상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52a)에서와 같이 *for*를 써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4.3 ‘원인’에 있어서 *from*과의 의미 비교

이기동(2005)에 따르면 X가 Y에서 떨어져 있고, Y가 X의 출발 지점일 때 전치사 *from*이 쓰인다. 이러한 *from*의 기본 의미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 전치사 from의 원형의미 도식(이기동 2005)

도식에서 살펴본 from의 출발지 관계는 인과 관계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원인은 시간상 결과에 앞선다. 그래서 X는 결과로, Y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아래의 문장에서 from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53) a. His failure in the business resulted *from* laziness.
 b. In the winter, people suffer a lot *from* cold.
 c. The children are tired *from* studying.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53a)에서 X에 해당하는 실패는 Y에 해당하는 게으름이 원인이 되었음을 from이 의미한다. (53b)에서는 결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감기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53c)에서는 아이들이 지치게 된 결과는 공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낸다.

from이 있는 문장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느 개체가 이동할 때, 어느 시점에 출발지를 떠나서, 그 후의 다른 시점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53a)에서 먼저 그가 게으름을 피웠고, 그 다음에 실패가 있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간상 앞선 것은 뒤에 오는 것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X from Y에서 from은 Y에서 떨어져 있는 X의 출발점이 Y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 속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에도 확대되어 쓰인다. from이 쓰이면 어떤 주어진 상태의 원인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with가 쓰이면 그 원인이 주어진 상태와 함께 있음을 나타낸다. with와 from의 의미의 차이를 다음의 문장에서 살펴보겠다.

(54) a. My hands are blue *with* cold.

b. The baby cheeks shone *from* recent soaping.

(54a)는 나의 손이 시퍼런 상태와 추위는 시간적으로 함께 있다. 현재 추위가 주위에 있는 가운데 손도 시퍼런 양상을 띠는 것이다. (54b)에서 아기가 비누질로 뺨이 빛났다는 것은 비누질을 하고 난 후에 살펴보니 아기의 뺨이 빛남을 알 수 있어서 비누질이 아기의 뺨이 빛나는 상태보다 시간상 먼저 일어난 것으로, 아기의 뺨을 빛나게 만든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아래의 문장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55) a. I am ready to die *with* anger.

b. The native died *from* natural causes.

(55a)에서 나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는 의미는 현재 화가 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정도라는 의미로 시간상 동시적이다. 그러나 (55b)에서 원주민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자연적 원인이 발생하여 우여곡절 끝에 그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주민의 죽음은 자연적 원인에 비해 시간상 후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장에서 보았듯이 with의 의미 확장에서 지속성의 원리가 적용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from의 출발지 관계의 원형적 의미는 은유적 장치를 통해 원인의 의미로 확대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지속성을 가지고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반작용’에 있어서 *against*와의 의미 비교

이기동(1991)에 따르면 X *against* Y는 X와 Y가 서로 힘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쓰인다. 이러한 *against*의 의미를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자.

- (56) a. No ship could sail *against* the wind that moved her.
b. I hit my head *against* the wall.

(56a)에서는 X가 움직이고, Y는 X의 진행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이다. 즉 X와 Y의 힘이 맞서는 관계이다. 배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against*가 나타낸다. (56b)에서는 Y가 움직이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X에 맞서는 힘은 (56a)보다 덜 뚜렷하다. 그러나 Y가 X에 힘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56b)에서 내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 아

프다. 아픈 것은 벽이 어떤 힘을 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X와 Y가 모두 추상적인 힘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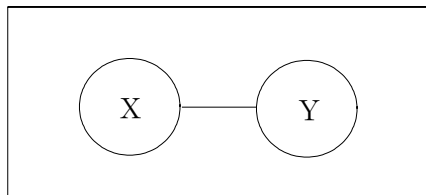
(57) a. The poor people rose *against* the king.

b. *Against* my advice, he waited until 12 o'c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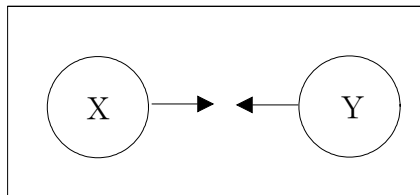
(57a)에서 정상적인 경우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그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왕에게서 오는 힘이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against*가 있으므로 백성들도 왕에게 어떤 힘, 즉 반항하는 힘을 가한다는 뜻이다. X와 Y의 힘이 서로 맞선다는 관계는 X가 Y에게 힘을 겨룬다는 뜻으로 확대된다. (57b)에서 의지나 충고도 어떤 방향으로의 힘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말자고 한다면,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갖는 힘이 맞서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7b)에서는 나의 충고와 그의 행동이 맞섬을 *against*가 나타낸다.

3장에서 보았듯이 *with*는 어떤 동일한 영역에 두 개체나 개념이 함께 존재하여 상호 작용함을 나타내나, *against*는 두 대상 사이의 힘과 그에 맞서는 힘의 반작용을 나타낸다. 이 두 전치사의 기본 의미는 다음의 도식으로 비교될 수 있다.

a. with



b. against



<그림 13> with와 against의 원형의미 기본 도식(이기동: 2005)

홍기범(1992)에 따르면 against는 X against Y의 문장에서 X와 Y가 움직여서 서로 맞부딪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Y는 제자리에 있지만 X가 움직여서 Y에 부딪히는 의미를 나타낸다. X와 Y가 맞부딪히는 개념이 추상화되고 확대되면 X와 Y가 서로 대립하거나 반대, 적대, 충돌, 불이익 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with는 어떤 관계나 사건에 도입된 두 개체나 개념의 도입을 의미하나, against는 두 개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의미까지 나타내므로 with보다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 두 전치사의 의미의 구분은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 (58) a. We were rowing (with/against) the current.
 b. The boys sailed (with/against) the wind.
 c. They made wars (with/against) the pirates.
 d. She competed (with/against) the best players.

(58a)에서 with는 동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with가 문장에 쓰이면 같은 방

향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조류를 동반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갔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맞부딪히는 의미를 나타내는 *against*가 쓰이게 되면 우리는 조류와 반대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이 된다. (58b)에서 *with*가 쓰인 문장은 아이들이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를 한 것이 되며 *against*가 쓰이면 바람과 반대쪽으로 항해를 한 것이 되어 두 문장에 있어서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 (58c)에서 *with*가 쓰이는 경우는 그들이 그들의 상대인 해적과 함께 전쟁을 했다는 의미로 전쟁이라는 영역에 그들과 해적이 도입된 관계로 해석할 수 있으나 *against*가 쓰일 경우, 상대에 대한 반대의 입장, 즉 힘과 반대의 힘의 관계에서 대립이나 충돌의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구체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58d)에서 *with*가 쓰이는 경우는 그녀가 우수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에 참가함을 나타내나, *against*가 쓰이게 되면 그녀가 우수한 선수들에 대항하여 겨룸을 나타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다음의 표현에서는 *against*만 쓰일 수 있다. X와 Y가 동등한 작용하는 개체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9) a. The player races *against* time.

b. I must fight *against* laziness.

(59a)에서는 선수가 시간과 경주를 한다는 의미로 Y에 해당하는 시간이 X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한 반작용의 상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선수와 같이 동등한 작용을 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선수가 뛰어넘어야 할 목표나 장애와 같은 대상에 해당한다. (59b)에서 나의 상대 개념은 게으름이다. 나는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용에 반작용을 가하는 상

대는 게으름이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게으름은 나와는 동등한 작용을 할 수 없는 개념의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의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뜻을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전치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비록 한 전치사가 다른 문장에서 쓰일 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치사가 나타내는 의미 중에는 어떤 공통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치사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전치사의 의미가운데서 ‘공통 속성’을 찾아내어 그 ‘개념’을 규명하는 인지문법에서 해결점을 구하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ith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이것에서 변형된 의미 및 추상적 의미로의 확대 과정을 인지문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with의 기본 의미는 togeth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 함께(together)’라는 개념은 ‘with’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에 ‘함께하는’ 혹은 ‘더불어 있는’ 두 개의 대상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 의미는 크게 동반과 상대의 의미로 확장되었는데 동반의 의미는 다시 보호/위탁/수반/지참, 도구/재료, 혼합, 소유, 동시, 동의, 연관성의 의미로 확대되었으며 연관성의 의미는 다시 원인, 목적, 양보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상대의 의미는 비교의 의미로 확장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with의 의미 확장의 과정은 하나의 의미망으로 도식화될 수 있었다.

with의 분석을 토대로 한 다른 전치사 to, at, from, against와의 의미 비교

에서 with는 to의 방향성의 의미, at의 자극-반응 관계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 from의 비동시적인 원인의 의미, against의 반작용의 의미 자질보다는 두 개념 사이의 관계성의 의미를 나타냄으로서 다른 전치사와 구분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5.2 교육적 함의

2000년대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단순한 영어지식의 암기나 습득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잘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교사가 내용을 전달하는 단방향 강의에서 학습자가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은 곧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열기는 실로 폭발적이지만 문제는 영어에 투자하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은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나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필요하다.

영어 전치사를 교수, 학습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관용구로 외울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을 활용하여 영어를 습득함으로써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학습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전치사의 경우 사전에 실려 있듯이 하나의 전치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을 아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머릿속에 내재해 있다. 모국어 사용자가 임의로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숨은 요소가 이러한 선택을 좌우한다. 영어 전치사의 경우에도 나타내는 전치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숨은 요소가 무엇이며, 이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영어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인지적 의미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인지의미론의 방법으로 전치사를 지도하고 학습한다면 그동안 관용구라 하여 암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전치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영상 도식의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형상의 심리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 의미에서 은유적 의미로 확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도식을 바탕으로 다른 전치사와 비교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전치사 사용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며 올바르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의미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를 유추해가는 과정은 다른 전치사 및 관용적 표현의 학습에도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보다 다양한 전치사에 대한 의미 확대 분석 연구와 이에 의거한 전치사 교수 방법에 대한 적극적 개발, 전치사의 의미 학습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이기동. 1991. 전치사 with의 의미. 「영어영문학연구」 12, 85-110.
- _____. 2000. 「인지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5.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홍기범. 1992. 전치사 for와 against의 의미 분석과 비교. 「부천전문대학 논문집」 13, 21-47.
- Aitchison, J. 1994.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Oxford: Basil Blackwell.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Group. Ltd.
- Caramazza, A. & Grober, E. 1976. Polysemy and the Structure of the Subjective Lexicon. In Ramech, C.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81-206.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oncise Oxford Dictionary*. 19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pper, P.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E. C. & 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I & II. 17-35, Amsterdam: John Benjamins.
- Hopper, P. & E. C.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1999.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 Kelly, E. F. and P. J. Stone. 1975. *Computer Recognition of English Word Senses*. Amsterdam: North-Holland.

- Lake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76. Semantic Representations and the 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 *Foundations of Language* 14, 307-357.
- Langacker, R. W. 1983.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역). 1999. 「인지문법의 토대 I」. 서울: 박이정.)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87. New York: Longman.
- Miller, G. A. & P. N. Johnson-Laird. 1976. *Language and Percep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ddy, M. 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G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284-3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eed, J. I. 1997. *Semantics*. Oxford: Blackwell.
- Taylor, J.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